

# “생각하는 축구로 우승 … 내년 K리그 1 ‘광주 불’ 일으키겠다”

## 광주FC 우승 박진섭 감독

‘디테일한 잔소리의 감독’이 ‘우승 감독’이 됐다. 올 시즌 1위 독주를 이어왔던 광주는 20일 마침내 우승팀이 됐다.

광주는 지난 19일 안양전에서 ‘해결사’ 펠리페의 머리와 ‘겁 없는 신인’ 김주공의 다리 4-0 승리를 거뒀다. 2위 부산을 승점 10점 차로 따돌린 광주는 20일 가슴을 졸이며 부산과 안산의 경기를 지켜봤다.

그리고 이 경기가 2-0 안산의 승리로 끝나면서 광주는 끈질겼던 부산의 추격을 물리치고 33라운드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광주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 우승을 지휘한 박진섭 감독은 “끝까지 긴장하면서 경기를 봤다”며 “우승이 확정되고 선수들, 프런트, 도움 주신 분들이 생각났다. 감사하다. 가족도 많이 걱정했는데 빠르게 잘 돼서 기분 좋다.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비로소 웃었다.

2019시즌 광주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양이 있었다.

광주는 20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1-7 대패를 당했다.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던 광주의 시즌 첫 패배였다. 무엇보다 19경기 8실점의 철벽 수비를 보였던 광주가 무려 7골을 한 번에 내줬던 만큼 패배의 충격은 더 컸다.

박 감독은 “가장 큰 고비는 안양전 7골 먹었을 때다. 올 시즌 첫 패배고 많은 실점을 해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26실점 ‘철벽 수비’ 원동력  
다양한 공격조합도 효과  
선수들과 소통해 색깔 입혀  
‘12번째 선수’들이 잘 해줬다  
응원해준 광주 팬들에 감사

선수들이 잘 극복해줬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대장정의 정점을 찍은 순간에도 안양이 있었다.

박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 다 중요하고 힘들었지만 (33라운드) 안양전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잘 마무리하면서 여유가 있었다”며 “부산에도 부담이 되면서 오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감독은 지난해 수비 실패를 곱씹으면서 올 시즌을 준비했다. 2018시즌 42실점을 했던 수비력을 올 시즌 26실점(무실점 17경기)으로 강화되면서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공격 다변화도 광주의 힘이었다.

박 감독은 “지난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점이 많았다. 수비를 가장 신경 썼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펠리페를 집중 공략할 것이라 생각해서 다양한 공격 조합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돌아봤다.

지난 시즌 아쉬움으로 남았던 ‘생각하는 축구’도 많이 성장했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선수들에게 디테일한 잔소리를 많이 했던 감독이다. 내년에는 큰 틀만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평소 강조한) 생각하는 축구는 20-30% 해낸 것 같다”고 첫 시즌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 시즌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색을 입혔고,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박 감독은 “2년 동안 소통을 가장 신경 썼다.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욕심은 끝이 없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축구가 70-80%된 것 같다”고 밝혔다.

우승이라는 긴 여정에 함께 한 모든 선수가 고맙지만 박 감독은 특히 ‘12번째 선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보였다.

박 감독은 “모두 고생했는데 12번째 선수가 가장 고생했다. 경기가 못 나가지만 교체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마음 쓰였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남은 세 경기에서 12번째 선수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의 활용도를 생각해야 한다. 내년까지 크게 봤을 때 부족했던 포지션에 대한 선수를 찾아야 한다”고 12번째 선수의 중요성과 중용을 이야기했다.

이제 박 감독은 K리그 1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변화’가 2020시즌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박 감독은 “새로운 격정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전용구장도 생기고 목포에서 생활하다 광주 클럽하우스 생활도 하게 되는 등 환경이 다 바뀐다”며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승격하게 됐다. 내년 시즌 K리그1, 새 구장에서 대구처럼 불을 만들고 싶다”고 새 도전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2019 K리그2 33라운드 경기에서 4-0 승리를 거둔 뒤 서포터즈들과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IA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신인 감독이 지난 18일 함평 헬린저스필드에서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명가 재건과 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맷 윌리엄스호’ 우승 향한 항해 시작

KIA 선수들과 첫 인사  
열정과 기본기 강조  
“선수들 영어공부도 해야”

출신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이는 대한 긴장감이 공존했다. 여기에 ‘영’이라는 속제까지 더해졌다.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단에 합류한 첫날 당장 선수단 스케줄표가 영어로 표기됐다.

“How are you?”라는 인사에 멧썩은 웃음을 짓는 선수들을 향해 윌리엄스 감독은 “앞으로 더 익숙해지고 이해할 것이다. 영어 공부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첫날 윌리엄스 감독은 헬린저스 필드의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탐색전’에 나섰다.

코치진은 기존 방식대로 훈련을 진행했고 윌리엄스 감독은 이를 지켜보고, 엔스니 투수 코치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선수단 파악에 나섰다.

긴장감을 보였던 선수들도 이내 밝은 분위기에서 훈련을 소화했다. 다음 훈련을 위해 대기 중이던 야수진들은 윌리엄스 감독이 보는 앞에서 ‘덕아웃 노래방’ 시간을 갖기도 했다. 스름 없는 선수들의 모습에 윌리엄스 감독도 박수를 보내는 등 첫 만남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매칠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을 파악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자신이 주문한 ‘기본기’

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첫날 직접 수비 시범을 보이면서 기본기를 강조한 윌리엄스 감독은 훈련 스케줄도 조절했다.

KIA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이번 캠프를 치른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25일이 휴식일이고, 26일에는 팬들과 함께 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이를 연속 훈련이 이뤄지지 않게 되자

윌리엄스 감독은 25일을 훈련날로 해서, 다음 주 4일전을 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입국 후 챔피언스필드 방문과 선수단 상견례 등 바쁜 행보를 하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은 팬들과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에 참가해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6일 호랑이가족 한마당 챔스필드서 선수단 전원 참석 팬들의 만남

KIA 타이거즈가 26일 팬들과 함께 하는 ‘2019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 전원 참석해 진행되며, 2019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팬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은 볼펜 및 더그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선수단 사진전, 팬 사인회,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및 군 전역 선수 소개, 선수-팬 토크쇼, 레크리에이션, 선수단장

가자랑, 호걸이 및 응원단 공연, 기념사진 촬영 및 하이파이브 등 행사가 펼쳐진다.

호랑이 가족 한마당의 ‘백미’인 선수단 장기자랑 시간에는 전상현, 차명진, 하준영, 김기훈, 장지수, 오선우, 이우성 등이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한편 행사 입장 티켓 신청(1인 2매 한정)은 21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이뤄진다. 선착순 1000매로 챔피언스필드 2매표소와 무인발권기에서 받을 수 있다. 우천 시에는 팬 사인회와 토크쇼만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리그, 태평법률사무소-END…광일리그, 카이로스-파트너스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마지막 승부’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9 무등기 사회인 야구 무등리그 준결승에서 4회 초 원포인트인원지 황성하가 도루를 시도해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의 가을 잔치 주인공을 다들 겸승 진출 팀이 확정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준결승전이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 결승전은 태평법률사무소와 END의 대결로 압축됐다. 광일리그에서는 카이로스과 파트너스가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다.

지난해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태평법률사무소는 원포인트인원을 9-5로 꺾고 다시 정상에 도전할 자격을 얻었다.

태평법률 사무소는 1회초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 동점을 이뤘다. 그리고 4-1로 앞선 5회초 4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내줬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4득점으로 반격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4번타자 박재철이 4안타 행진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END는 자연환경의 화력에 막혀 1-10 대패를 기록했지만, 대회 규정에 따라 몰수승으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자연환경이 선수출신 선수 기용에 대한 대회 규정을 위반하면서 최종적으로 0-7 몰수패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광일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려던 에프나인이 도전은 카이로스에게 맡겼다. 카이로스는 지난해 준우승팀 에프나인을 상대로 9-3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1회 1점씩을 주고받은 뒤 카이로스가 2회 3점을 시작으로 6회까지 메이닝 득점에 성공했다.

선발로 나온 임홍서가 5이닝 3실점으로 초반 싸움을 주도했고, 김태호가 마무리로

◇무등기 6주 차 경기 전적  
■무등리그 4강전  
◆1경기(6회 시간 제한승)  
원포인트인원지 100040-5  
태평법률사무소 011241-9  
▲승리투수 : 고희무  
◆2경기(몰수승)  
자연환경 000000-0  
END 111111-7  
■광일리그 4강전  
◆1경기(6회 시간 제한승)  
카이로스 131211-9  
에프나인 100020-3  
▲승리투수 : 임홍서  
◆2경기(4회 콜드승)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232-7  
파트너스 02411-17  
▲승리투수 : 이영준

나와 1이닝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파트너스는 4회 대거 11점을 뽑아내는 폭발력을 과시하면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을 7-17로 꺾었다.

2-5로 뒤진 3회말 4점을 뽑으면서 리드를 잡은 파트너스가 4회초 수비에서 2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4회 공격에서 11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17-7의 월드승을 장식했다. 4번 타자 김대원이 3안타로 공격의 중심에 섰다.

한편 무등기 결승전은 오는 27일 무등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오전 10시 광일리그 결승전이 시작되고 오후 1시에는 무등리그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